

## Cities in Telecommunications Age: The Fracturing of Geographies

edited by James O. Wheeler, Yuko Aoyama, and Barney Warf, New York: Routledge, 2000, 350p.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것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그들이 이동해야 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도시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간에 의한 시간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Graham and Marvin, 1996). 그러나,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비물리적 이동을 포함하여) 공간적인 이동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탄생했으며, 이는 시간에 의한 공간의 극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Graham and Marvin, 1996). 그러므로, 도시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얼핏 서로 상충되는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의해 도시가 가지는 포괄적으로 도시경제(urban economies)라고 부르는 이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따라서, 사람들은 도시경제의 이점이 없어진 상태에서 도시불경제(urban diseconomies)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더 이상 도시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 지리학 및 인접분야에서 출간된 몇몇 저서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및 이용은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의해 창조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하고 때로는 중첩되는 공간이며, 도시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는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주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 지리학

과 주최로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라는 주제 하에 학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때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한 것이 바로 이 "Cities in Telecommunications Age: The Fracturing of Geographies"이다. 이 책에 참여한 저자들을 보면, Castells나, Graham과 Marvin을 비롯하여 최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저서, 논문 등을 발표해온 대표적인 학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한 모두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절 소개부분은 편집자들에 의한 이 학회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경향, 개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Castells의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에 관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흐름의 공간은 교통, 통신 등의 하부구조에 의해서 형성되며, 하부구조의 특성에 의해 그 기능이 결정된다. 흐름의 공간은 또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에 의해서도 형성되는데, 각 네트워크의 목표와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흐름의 공간의 형태가 결정된다. 편집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흐름의 공간에 관한 개념은 특히 위의 학회가 개최되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 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론적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제2절은 모두 3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yberspace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논의이다. 제3장은 Moss와 Twonsend의 어떻게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관한 논의인데, 이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신에 따라 가정, 직장, 통근, 공공 장소 등에서의 도시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는가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4장은 '인터넷의 지리학'에 관한 Dodge와 Shiode의 경험적인 연구로서 연구자들은 인터넷 공간의 소유에 대한 패턴을 확인하고, 이러한 패턴을 internet real estate로 비유하였다. 제5장에서는 Warf가 cyberspace에 대한 인식론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cyberspace에서는 기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간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간은 점점 cyborg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계획학적인 관점에서 하부구조의 한 부분으로서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제3절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에서 Graham과 Marvin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후에도 도시는 여전히 대면접촉(face to face contact)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적 이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정책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사안에 보다 사회, 환경적인 이슈들을 포함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제7장은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형성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미국도시 정부에 의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McDowell은 제8장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미국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사이에 정책수행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9장의 저자들은 지리학자들인 Brunn과 Leinbach인데, 이들은 대표적인 무선전화 생산업체인 Nokia를 기업이 지역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제2절을 마무리하는 제10장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이의 사적 소유에 따라 사회적인 소외계층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로부터의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도시의 빈민이나 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기제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3절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1장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식집약적인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도 사람들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여전히 중요성을 가짐을 지적하고 있다. 제12장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거리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은 실리콘 벨리와 같은 지역적 산업 클러스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집적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13장에서 Hackler은 정보집약적인 산업의 입지는 기존의 산업중심도시에서부터,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의 기존의 중심도시에서부터 분산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14장에서 Mugerauer는 high-tech기업의 대표 및 전문직 종사자 4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 바탕을 둔 설문 조사를 통하여 high-tech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환경적 요인을 찾아냈다. 제15장에서 Gillespie와 Richardson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여행이나 도시내의 이동의 수요를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따라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반드시 환경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4절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16장은 영국의 Sunderland라는 도시를 사례로 정보통신기술이 도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흐름의 공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7장은 여성 지리학자인 Burns의 연구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telecommuting이 가능해지면 통근패턴이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Phoenix시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아직은 telecommuting은 소수의 통근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대안이며, 통근의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많은 통근자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제18장은 Georgia의 Gwinnett County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무선전화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 네트워크는 기존의 다른 통신수단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장인 19장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CBD지역의 오래된 빌딩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리라는 예측이 반드시 맞지 않음을 Chicago와 Atlanta를 사례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오히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구조물의 개조가 용이하게 되어 다양한 형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가 하나로 편집되어 있는 책들이 가지는 단점은 책의 구성과 주제의 일관성이 유지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인데, 이 책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지리학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 중의 하나인 정보통신과 도시 공간에 관한 연구의 다양한 내용을 한 권의 책을 통하여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Cities in the Telecommunications Age*가 주는 커다란 장점일 것이다. 정보통신과 도시의 변화와 관련되는 주요한 연구 주제들이 거의 모두 망라되어 있으므로, 그간의 연구 경향에 관심이 있으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도시분야 연구자들에게는 좋은 시발점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정보통신의 발달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경제를 해소하고 모든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서 유토피아적인 미래도시의 도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구조는 기술적인 발달과 사회경제적인 필요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 포함된 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시의 활동이 분산되거나, 또는 도시로의 집적이 더욱 심화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도시발달의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메트로폴리스에서 공간은 여러 가지 목적과 필요를 가진 개

인 및 사회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공간 구조는 정보통신망의 발달정도 및 각 사회집단과 정보통신망과의 연결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불균등하게 형성·변화되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파편화된 공간 구조의 변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Gramham and Marvin, 2001). 따라서, 파편화된 지리(fracturing of geographies)라는 표현은 현대 메트로폴리스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특징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여기에 포함된 사례연구가 거의 모두 미국이나 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편화된 지리의 모습을 가진 현대 메트로폴리스의 단면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 참고문헌

- Graham, Stephen and Simon Marvin, 1996,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Electronic Spaces, Urban Places*, London: Routledge.
- \_\_\_\_\_, 2001, *Splintering Urbanism: Networked Infrastructures, Technological Mobilities and Urban Condition*, London: Routledge.

한주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강사)

(2002년 12월 7일 접수)